

#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정책 패러다임의 융합적 변화에 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전철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 A Study on the Convergent Change Revitalization of Paradig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Support Policy

Chil-Soo Jeon  
Korean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요 약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지원해 왔다.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를 지원하여 왔다.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전승활동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공예품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활동의 융합화를 위하여 무형문화재대전 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지향하며 세계유산포럼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제어 : 문화재, 무형문화유산, 전승활동, 전승공예품, 이수심사, 문화유산활용

**Abstract** Korea has been designated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ith outstanding value amo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have supported various exhibitions and performance activities,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Public Events. However, in recent years, more diverse policies have been pursued in order to revitalize transmission activities and the State is leading the Completion examination system.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zation of crafts, we introduced a Craft Bank System. In addition, to increase the marketability of crafts, we have implemented the certification system for crafts. For the diversity of transmission activities, we are promoting the Transmission Education School System. In order to fuse traditional activitie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xhibition is being held and the World Heritage Forum is being pursued. In this study, we analyze various policies of the new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and seek ways to improve them.

**Key Words** : Cultural Propertie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ransmission Activities, Traditional Crafts, Completion Examination, Cultural Heritage Utilization

### 1. 서론

그 동안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통하여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활용하면서 국민

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많은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에서 학술적, 예술적, 기술적으로 가치가 뛰어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전승자와 보유단체에게 매달 전승지원금을 지원해 왔

\*Corresponding Author : Chil-Soo Jeon (jcsk357@korea.kr)

Received July 27, 2018

Accepted September 20, 2018

Revised August 12, 2017

Published September 28, 2018

다. 무형문화재의 전승활동을 위하여 각종 전시회와 공연 활동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승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전수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수심사 제도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공예품은행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예품의 품질과 상품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예품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승활동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수교육학교 지원제도를 도입하였다[1]. 이러한 정책 대부분은 잘 추진되고 있지만, 일부 사업은 추진 목표가 불분명하고 방향성이 모호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사 정책 간에 연계성이 부족하여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정책들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지원정책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적으로 기존에 추진해 오던 정책들 및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문헌을 조사하였다. 또한 지원 정책의 수요자인 전승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문헌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실제 지원정책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지원정책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형문화유산 정책 개선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행 무형문화유산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이수심사 제도는 평가 내용과 방법이 객관성이 부족하며, 전수교육학교 정책은 교육분야가 너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은행제는 활용 범위가 너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지원 정책의 목표와 지원 내용 등이 유사한 정책이 서로 각각 운영되어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수심사제와 전수교육학교 교육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양 제도 간에 연계성도 부족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진흥되기 위해서는 보다 개선된 전승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이수심사, 전수교육학교,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은행제, 무형문화재대전 등 각각의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이수심사제와 전수교육학교 등 유사성이 있는 정책은 상호 연계성을 높여 통

합적이고 융합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전승 활동의 활성화 방안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고찰하고자 한다[2,3].

## 2. 전승활동 지원 정책 고찰

### 2.1 기존의 지원 정책

문화재청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동안 많은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가장 기본적인 정책은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전하는 무형문화재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는 점이다. 무형문화재는 1964년부터 최근(2017.5.)까지 137종목이 지정되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전승자의 전승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전시나 공연행사에 다양한 방법으로 민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전승자의 전수 교육과 전승 활동이 국민과 함께 이루어지도록 공개행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전승자의 공예품 국내 전시와 예능 활동에 대한 해외 공연 지원, 그리고 전승자의 전수교육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승자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4].

### 2.2 새로운 지원 정책(패러다임 변화)

상기와 같은 기존의 전승지원 정책 외에도 최근에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2016년부터 시행한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무형문화재대전 행사가 있다. 인증제는 전승자의 전승공예품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을 하는 제도이고, 무형문화재대전은 전승자가 한 자리에 모여 각 분야의 기량을 펼치는 행사이다. 또한 같은 해에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 행사를 처음 개최하여 지금까지 지원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2016년에는 국가가 이수심사 제도를 주관하여 시행함으로써 전수교육과 심사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전수교육학교 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및 충북대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전승자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다변화하였다[5].

### 2.3 기존 정책과 최근 지원정책 비교

기존의 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전승지원금 제도, 전승 활동 민간보조금 제도, 공개행사 지원 정책 등은 모두 무형문화유산 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전승활동 지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시행된 전승공예품 인증제나 은행제, 이수심사제도, 전수교육학교 제도, 무형문화재대전, 세계무형유산포럼 등의 정책은 전문화, 대중화, 세계화의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한 시의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지원 정책과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정책들이 상호 보완적이고 상생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정책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하겠다[5].

### 3. 전승지원정책 패러다임 변화 분석

#### 3.1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심사 제도 분석

##### 3.1.1 이수심사 의의 및 근거

이수심사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보유단체로부터 해당 종목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았거나 전수교육대학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전수자의 기량 정도를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이수심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이라 한다)』에 근거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법 시행령 제23조는 전수 교육과 이수심사 항목과 심사기준, 그리고 이수증 발급 방법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 3.1.2 국가 전환 배경 및 주요내용

이수심사 제도는 1983년 문화공보부가 이수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이수증을 발급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1993년 정부의 행정 자율화 조치로 1994년부터 보유자가 자체 심사하여 이수증을 교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수심사의 투명성과 공신력 확보, 그리고 전수교육의 다변화에 따른 이수심사제의 구조적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다시 발급하게 되었다. 2017년도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총 51건의 이수심사를 실시하였다. 2018년도에는 이수심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종묘제례악 등 60건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수심사에 합격한 이수자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2급)'자격을 획득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무형문화재 분야를 교육할 수 있다[7].

#### 3.2 전승공예품 은행제 분석

##### 3.2.1 목적 및 근거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전승공예품의 구입과 활용을 통해 전통기술 분야 전승자들의 전통공예품 제작 의욕을 고취하는 등 전승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다. 또한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전통기술의 전승 활성화를 촉진하고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전승공예품의 구입·대여·활용·관리를 아우르는 종합관리 운영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근거 규정으로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법이 제정(2016. 3. 28.)되면서 '전승공예품은행'이라는 명칭이 신설되었다.

##### 3.2.2 운영 현황 및 활용 시스템

최초의 전승공예품의 작품 구입은 197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13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13년에 국립무형유산원이 개원하면서 작품이 무형유산원으로 이관되었다. 이후 2016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작품 구입·대여 업무는 '전승공예품은행제'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2017년에는 전승공예품은행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전승공예품은행제의 기본 틀을 갖추었다. 2018년 5월 현재 4,658점의 공예품을 구입하였으며, 56기관에 3,224점을 대여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형유산원에 보관하여 필요한 때에 수시로 대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전승공예품은행제는 원칙적으로 전승공예품 대여·전시활동 등을 통한 우리나라의 전승공예품의 우수성 홍보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신장에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전승공예품의 구입과 활용, 그리고 관리는 무형유산원의 전승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리되고 있지만 미흡한 점도 일부 존재한다[8].

#### 3.3 전승공예품 인증제 운영 분석

##### 3.3.1 목적 및 근거

문화재청은 전승공예품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전승공예품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전승공예품 인증제의 목적은 국가가 인정한 전승공예품으로서의 브랜드 가치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판매를 확대하여 전승공예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다.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규정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전승

공예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인증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립무형유산원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18-1호(2018. 6. 29. 시행)」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 3.3.2 추진현황 및 운영체계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2012년 인증제 연구용역이 시작되었고, 2015년 인증제에 대한 관련 기준이 개발되었다. 2016년에는 식(食)을 주제로 보유자작품전 출품작 중 식기, 용기류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시범운영하였다. 2017년에는 주(住)를 주제로 국가무형문화재 전승자 작품 8종목, 14개 상품을 인증하였다. 2018년에는 의(衣)를 주제로 공모 심사를 통하여 우수한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인증제는 전통기술, 기법 등 무형문화재 전승 활동에 부합하는 공예품을 제작하여 공예품의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9].

## 3.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프로젝트

### 3.4.1 목적 및 근거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재 전승체계의 다변화와 미래 세대의 전승활동에 대비하여 젊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목표로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무형문화재 도제식교육과 학교교육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전수교육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무형문화재 전승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학교 선정 및 지원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그리고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제2016-2호)에 따라 운영된다.

### 3.4.2 추진내용 및 교육 운영

전수교육학교 제도는 2016년에 전수교육대학 운영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17년에는 전수교육대학 시범학교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한산모시짜기, 단청장, 사기장, 목조각장)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외에 추가로 충북대학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수교육학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전승자 교원 인건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그리고 교재비, 실습재료비, 전수장학금 등이 지원된다. 또한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한해 전수교육 이수심사 기회가 부여된다[10].

## 3.5 무형문화재대전 지원운영 분석

### 3.5.1 배경 및 목적

우리의 자랑스런 전통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전통문화 축제가 필요하다. 문화재청은 그 동안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형문화재 행사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무형문화재 종합 브랜드축제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대한민국 무형문화재대전을 개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대전은 우리 선조가 물려 준 소중한 무형의 가치를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자는 뜻인 대대손손(代代孫孫)을 기본 테마로 하고 있다.

### 3.5.2 추진경과 및 내용

대한민국무형문화재대전은 2016년 경기도 일산의 킨텍스에서 전통공예 박람회 형태로 처음 열렸다. 2017년에는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기능과 예능을 아우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 무형문화재 축제로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9월에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리게 된다. 무형문화재대전 주요 내용은 전시, 공연, 참여프로그램, 그리고 학술적 연구를 위하여 세계무형유산포럼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다.

기능 분야(전시) 행사로는 인간문화재의 작품을 통해 전통공예의 백미를 맛볼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관’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예능 분야 행사로는 강강술래, 아리랑, 태권 등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어우러진 ‘인류무형유산 합동공연’이 축제의 수준을 높이고 있다. 또한 체험 분야에서는 합동 공개행사가 펼쳐지면서 국민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무형문화재를 직접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술 분야 행사로 무형문화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이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에 기여하고 있다[11].

## 3.6 세계무형유산포럼 지원사업

### 3.6.1 배경 및 목적

최근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에 대한 새로운 국제 담론을 형성해가고 있다. 포럼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전승·활성화·지속 가능발전목표를 위한 새로운 무형유산도

시 관련 담론을 창출하는 데 있다. 다음으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통해 인권, 문화다양성, 평화와 안전 등 국제적인 이슈 개발을 모색하는 데 있다.

### 3.6.2 주요내용 및 성과

2017년도에 개최된 세계무형유산포럼은 [무형문화유산과 도시]라는 주제로 10월 27일부터 이틀 동안 전주에 있는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렸다. 최근 일부 도시는 전통문화를 복원해서 도시의 상징으로 재생산하기도 한다. 어떤 도시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항목을 랜드마크로 삼아 관광산업에 활용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 도시의 정체성, 사회적 응집력,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도시 내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가치와 전승 방안을 제시하고 도시 문화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12,13].

## 4. 전승지원 정책을 통한 융합적 활성화 방안

### 4.1 전승지원정책 문제현황 분석

#### 4.1.1 이수심사제도와 전수교육학교 사업 문제점

이수심사제도는 보유자나 보유단체로부터 일정기간 전수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수심사를 통과하면 이수자 자격을 부여하는 전승자 양성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전수교육학교 제도는 전수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이수심사에 응할 자격을 부여하는 전승자 양성제도이다. 양 제도는 이수심사를 매개로 하로 전승자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기관에서 서로 다른 운영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 상호 연계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 4.1.2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은행제 분석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전승자의 작품에 대해서 국가가 인증함으로써 작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판매를 촉진하는 제도이다.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전승자의 작품을 구입하여 전승활동을 촉진하고, 구입한 작품을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양 자 모두 전승자의 작품 활동을 장려하고 전승자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유사성과 연관성이 매우 높

다. 그러나 현재는 인증제와 은행제가 각각 작품의 평가나 구입과 판매 방식 등 운영시스템이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 4.1.3 무형문화재대전과 세계무형유산포럼 분석

무형문화재대전은 전승활동을 주도하는 전승자가 한 자리에 모여 최고의 기량을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무형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전승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양 자 모두 전승자의 활동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현재는 서로 다른 지원체계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계성과 통합성이 떨어진다.

### 4.2 전승지원정책 융합적 활성화 방안

#### 4.2.1 전수교육학교와 이수심사제도 연계 활성화

전수교육학교 제도는 전승체계를 다변화하고 우수한 전승자 양성을 목표 전수교육을 마치게 되면 이수심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한다. 한편 이수심사 제도는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일정 기간 전수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심사 받을 자격을 주고 이수심사에 합격하면 이수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볼 때 전수교육학교 제도나 이수심사제도 모두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고 국가제도를 통하여 전승자를 양성을 한다는 데는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는 이수심사를 볼 자격을 부여 받게 되어 양 제도는 연계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전수교육학교와 이수심사 제도를 연계시켜 통합적으로 운영하여 일관성이 있고 체계적인 이수심사 시스템으로는 개편하여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2.2 인증제와 은행제의 통합적 운영 활성화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전승자의 우수한 작품을 국가가 인증하여 작품의 품질을 높이고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승공예품 은행제는 전승자의 작품을 국가가 구입하여 전승활동을 지속하고, 전승공예품의 활용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인증제나 은행제 모두 전승공예품을 매개로 하여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작품의 판매와 활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인증제와 은행제의 유사성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양 제도를 연관성있

는 내용을 통합하고 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여 활성화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4.2.3 무형문화재대전과 세계무형포럼 융합적 운영  
무형문화재대전은 기능과 예능 분야의 전승자가 함께 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작품을 전시하고 기량을 발휘하고 전승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세계무형문화포럼은 전승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을 학술적으로 연구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정책적 지원사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형문화재대전이나 세계무형문화포럼 모두 전승자의 전승활동을 지원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유사성과 연계성이 높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대전과 세계무형유산포럼의 목적과 사업 내용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양 제도를 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지속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 한다[14,15].

## 5. 결론 및 제언

무형문화유산은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 선조들의 정신과 혼이 깃든 소중한 자산이다. 현재의 우리가 잘 보전하고 진흥하여 미래 세대까지 진정한 모습으로 전해 줄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전승지원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이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현행 무형문화유산 정책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먼저, 개별적인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이수심사 제도는 심사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지 못하고, 전수교육 학교 정책은 교육과목이 너무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방향성이 모호하고, 은행제는 활용방안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또한 무형문화재대전은 통합성이 부족하며,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목표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정책이 서로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므로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나아가 목적과 내용이 유사한 정책은 서로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여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 이수심사 제도는 심사 종목을 좀 더 세분화하고 보다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전수교육학교 제도는 교육과정을 보다 확대하고 전문 교

수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전승공예품 인증제는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은행제는 공예품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재대전은 각각의 행사 종목을 종합하여 통일성을 강화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포럼은 지향해야 할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사 정책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높여 융합적 발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전수교육학교 제도와 이수심사 제도의 연계성을 제고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승공예품 인증제와 은행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여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향상시켜야 한다. 무형문화재대전과 세계무형유산포럼은 상호 융합적 통합을 시도하고, 학술적 연구를 계속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는 비교적 최근의 무형문화유산 정책을 분석하여 현행 정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을 고찰하였다. 짧은 기간의 연구로 연구 결과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보다 세분화되고 깊은 연구가 계속되어 보다 진전된 무형문화유산 정책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 소중한 우리의 무형문화유산이 더욱 가치있고 전승활동이 활성화되어 인류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16,17].

## REFERENCES

- [1]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Work Plan. <http://www.nihc.go.kr>
- [2]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Work Plan. <http://www.cha.go.kr>
- [3] C. S. Jeon, Study on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Ancient Capital based on the satisfaction degree of Ancient Capital Policy, Mokwon University, Ph.D thesis 2015.
- [4] Cultural Heritage Potal. <http://www.heritage.go.kr>
- [5] S. J. Jung, "Constitu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nstitution and its historicity" The Korean Folklore, pp.475-508, 2004.
- [6] Regional Collaboration for Safeguarding ICH in Asia and the Pacific : Tasks and Strategies
- [7] Understanding the Cultural Heritage of Korea
- [8] 2016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Conference - The Current Policies and the Activation Plans of Traditional Crafts
- [9] Korean Cultural Heritage Foundation.

<http://www.chf.or.kr>

- [10]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 [1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ourier of Asia and the Pacific, <http://www.ichcap.org/kr>
- [12] 2017 World Forum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13] 2015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ternational Conference - Roles and Challenges of Korea for Supporting International ICH Safeguarding
- [14] The 1st Asia and Pacif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estival International Conference in Jeon-ju - Critical Agenda for Revita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15]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http://www.nrich.go.kr>
- [16] UNESCO World Heritage Center, World Heritage, Challenges for the Millennium, 2007.
- [17] C. S. Jeon. (2015). A Analysis Study on the A Status of the Ancient Capital Preservation and Promotion Project in Buyeo, J.of the Koren Institute of Rural Architecture, 17(3), 81-88.

전 칠 수(Chil-Soo Jeon)

[정회원]



- 1990년 2월 : 고려대학교 교육학 (학사)
- 2013년 2월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행정학석사)
- 2015년 12월 : 목원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공학박사)

· 2014년 7월 ~ 현재 : 전통문화대학교(중간:무형유산원)

· 관심분야 : 문화, 문화유산, 문화재행정

· E-Mail : [jcsk357@korea.kr](mailto:jcsk357@korea.kr)